

⑤ 80년대에는 정부 보건정책이 일차보건의료 사업의 조직자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교육, 선진국과의 정보교환, 정부의 정책 수립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결 론

지난 일을 돌아보면 언제나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지난 것들 중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하여 다시 정진하여야 하는 것이 본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나 개인이 취하여야 할 길이라고 생각되며 본회는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회원의 권익과 자질 향상을 위한 일에 초점을 두고 총력을 경주할 것을 회원 여러분과 우리들 자신에게 재삼 다짐하고자 한다.

임상간호원회

박 정 호
(임상간호원회 회장)

현대 간호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지 어언 100년을 지나면서 국내외인 간호사업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치료에 공헌하기 위한 간호실무에 종사하면서 좀더 좋은 간호를 베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 경제발전은 의료 및 간호사업에도 대중의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고 이에 부응한 간호사업은 확장된 역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병원과 질병중심인 간호사업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차보건의료사업으로 또한 사회복귀와 복지를 위한 재활, 노인건강에 이르는 3차의료 및 간호사업의 광범위한 영역, 즉 학교, 병원, 지역사회, 건강사업소, 영아원, 재활원, 노인을 위한 시설 환업장 등에 다양한

간호사업 목적과 내용의 간호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간호 사업은 요구되는 사업소의 증대는 물론 각 간호사업의 확대(expansion)된 역할과 기능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간호 지도자들은 계획된 변화를 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원 간호사업은 개개인 입원환자의 문제를 사정하는 기능과 환자간호계획을 수립하여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며 이 간호행위가 환자의 요구와 간호의 문제로 해결 되었는지 평가하는 일련의 환자간호과정으로서 개인간호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인간생활을 복귀하는 것을 돕는 것이 병원 간호원의 뚜렷한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런 간호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병원간호사업을 계획, 수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병원 간호사업 조직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환자간호 중심체제로 재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병원 간호행정자들이 간호원은 환자간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지만 환자간호는 무엇이며, 또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든지, 환자간호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간호직원의 자격과 능력, 인원수, 필요한 시설, 간호용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설정이 불가피하며 병원 각 간호단위의 목표 설정 및 표준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환자 간호의 문제영역별에 따른 기준설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병원사업 전반적인 수행, 평가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최우선의 간호행정의 방침은 환자중심의 간호가 되도록 간호부 내의 정책결정은 물론 병원사업 전반적인 부분에도 이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수준의 간호 감독자(부장, 과장, 감독, 수간호원, 팀지도 간호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의 부여와 함께 기대되는 결과가 보여질 수 있는, 즉 측정될 수 있는 의무(accountability)를 주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

이는 직원의 도덕감(morale)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 부여가 또한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앞으로 병원 간호사업의 형태는 좀더 직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협의나 광의의 Team Nursing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 조직형태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간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비전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열두를 두고 항상 인원을 보충한다고 해도 인원이 남아 돌아가지는 않고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적정인원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연구 조사 방법으로 각 병원 수준에 맞는 인력 모형을 개발하고, 현재 간호업무활동을 분석, 비간호 영역과 현재 간호인력의 활용도를 파악, 과감히 업무위임, 인력대책을 서둘러야 하며, 직원의 직업만족 및 이직을 저하를 위한 다방면의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즉, 기혼간호원의 활용을 위한 시간제 근무시간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며 낮번, 저녁번, 밤번에 따른 장려 임금제를 활용하며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역동적인 교육사업으로 창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예비교육, 간호기술훈련은 물론 간호영역별 임상 전문 간호원, 간호관리자의 교육훈련을 서둘러 전문 간호영역의 기능과 역할을 재확인, 실천할 수 있는 간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의 향상으로 효율적인 교육목표에 달성토록 할 것이다.

넷째, 간호업무의 질보장제도(Nursing Quality Assurance Program)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업별 간호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 및 기준에 준하여 행하여진 간호행위가 어느 정도 실천되었고 성과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즉 간호원의 책임과 의무(accountability)의 강조와 그의 실천을 위한 감독체계의 재편성은 물론 적절한 간호통계기능을 체계화하여 동료의 평가(peer review)를 중심으로 간호기록의 감사, 퇴원환자 설문지법, 간호집담회, 환자간호순회, 감염보고, 사건보고 등의 각종 보고를 분석하여 간호의 질보장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간호조직 책임자는 새로운 결심을 갖고 간호의 새로운 방향의 정책결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병원사업의 여건에서 쉬운 것, 단순한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간호사업의 변화유도자이며 실천자로서 우리의 대상자인 환자와 가족, 대중에게 신뢰받는 간호원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병원 간호행정자 모두가 단합하여 공동의 차원에서 명칭으로서의 간호원이 아닌 실력시대의 간호원으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